

루드야드 키플링 (1865-1936)

영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영국이 자랑하고 사랑하는 작가로 1865년 인도에서 인도 예술학교의 교수이자 화가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여섯 살에 영국의 다른 가정에 양자로 보내졌으나 영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열일곱 살이 되던 해 다시 인도로 돌아와 영자 신문 기자로 일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키플링은 인도와 인도인들의 삶을 예민하게 관찰하며 취재 기사는 물론 단편과 시를 써 책으로 출간하였다. 인도의 풍습을 소재로 한 작품을 다수 발표해 영국 독자들에게 이국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면서 폭넓은 관심을 끌었다.

1888년 단편 《고원의 민담》을 발표하여 이름을 알렸고, 1892년 《병영의 노래》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1894년 《정글북》을 세상에 내놓으며 아동 문학 작가로도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그 외 작품으로 《정글 이야기 2》, 《킴》, 《바락-롬 발라드》, 《바로 그런 이야기》, 《7번째 바다》 등이 있다.

「정글북」은 여러 동물들이 나름대로의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던 정글에, 어느 날 호랑이 시어 칸이 어린 아기를 물고 오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 늑대 가족이 호랑이로부터 이 아이를 구해 개구리라는 뜻의 ‘모글리’라는 이름도 지어 주고 친 자식으로 기른다. 모글리는 대장 늑대 아켈라와 곰 발루, 표범 바기라의 보호와 가르침을 받으며 용감하고 영리한 늑대 소년으로 자란다. 하지만 모글리는 자신이 다른 늑대들과 다르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고, 늑대 무리들도 그런 모글리를 두려워하여 밀림에서 쫓아내게 되는 데...

《정글북》은 정글에서 자란 늑대소년 모글리와 정글 동물들의 우정과 사랑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했으며 모글리의 삶을 통해 인간세계의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정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글리의 모습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정글 속 동물들의 특징을 잘 살려내 동물 문학의 새로운 분야를 열었다는 평을 얻기도 했다.

【제1장】 숲속의 아기

p. 12-13 어느 더운 여름날 저녁, 늑대 가족이 자신들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인도 남단의 시오니 산에 있는 한 동굴이었다. 아빠가 잠에서 깼다. 그는 일어서서 엄마 늑대와 네 마리의 새끼들을 바라보았다.

“우린 나가서 먹이를 구해야 한다.” 아빠 늑대가 말했다. 그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행운을 빌어.”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늘 말썽을 일으키는 자칼 타바키였다.

p. 14-15 “호랑이 시어 칸이 먹이를 찾아 이리로 오고 있어.” 타바키가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는 우리에게 먼저 알려야 해.” 아빠 늑대가 말했다. “그는 오늘 밤 인간을 사냥할 거야. 동물이 아니라.” 타바키가 말했다. “하지만 정글의 법은 인간을 죽이는 것을 허락치 않아. 그건 총을 든 인간들을 불러올 뿐이야.”

그때, 그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 “인간의 새끼야!” 아빠 늑대가 말했다. 한 아기가 그들 앞에 있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았다. 아기는 엄마 늑대 쪽으로 걸어갔다. “뵤요, 이 애기 다른 세계들과 함께 젖을 빨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다는 걸 들어 봤어요.”

p. 16-17 그때, 시어 칸의 커다란 머리가 동굴 안에 나타났다. “시어 칸! 만나서 반갑군. 뭘 원하나?” 아빠 늑대가 물었다. “난 인간의 새끼를 찾고 있다. 그 애가 너희들과 함께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애를 내게 줘.” 시어 칸이 요구했다. 시어 칸은 아주 크고 무서운 호랑이었다. 그러나 아빠 늑대는 겁내지 않았다. 호랑이가 너무 커서 동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안 돼. 난 그 애를 가질 수 없어. 그 애는 이제 우리 거야.” 아빠 늑대가 말했다. “난 이 애를 내 아들로 기르겠어.” 엄마 늑대가 말했다. “꺼져 버려, 시어 칸, 이 물고기나 잡아먹을 놈야!” 이 말에 시어 칸은 무척 화가 났다. “언젠가 그 인간의 새끼는 내 것이 될 거다, 이 도둑놈들아!”라고 말하며 시어 칸은 동굴을 떠났다.

p. 18 아빠 늑대는 매우 놀랐다. “정말 이 애를 당신 아들로 삼고 싶소?” 그가 엄마 늑대에게 물었다. “네, 이 애를 길러요. 전 이 애를 개구리라는 뜻의 ‘모글리’로 부르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정글의 법은 어떡하고? 법에는 모든 늑대 새끼들은 달릴 수 있게 되면, 무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되어 있어.” 아빠 늑대는 걱정되었지만, 그들은 모글리를 자신들의 세계로 키우기로 결정했다. 모글리는 다른 세계들과 함께 달리며 놀았다.

p. 20-21 어느 날, 만남의 바위에서 늑대 무리의 회의가 있었다. 회색 늑대 아켈라가 우두머리였다. 그는 늑대 새끼들 전부에게 자기 앞에 서도록 요구했다. 아빠 늑대는 모글리를 아켈라 앞으로 밀었다. 그때 늑대들에게 숲속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시어 칸이었다. “그 애는 내 거다.” 그가 으르렁거렸다. 아켈라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다. “누가 이 인간의 새끼를 대변하겠는가? 저 애의 아빠와 엄마를 제외하고, 두 명이 필요하다.”

p. 22-23 갈색 곰 발루와 흑표범 바기라가 늑대의 무리로 들어왔다. “내가 그를 대변하겠소.” 그들이 말했다. “인간의 세끼를 죽이는 것은 아주 좋지 않소.” 바기라가 말했다. “게다가 인간의 세끼는 당신들을 해치지 못하오. 그는 나중에 당신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오.” “난 또 그 아이에게 모든 정글의 법을 가르치겠소.” 발루가 말했다. 다른 늑대들이 동의했다. 아켈라는 그 결정에 만족했다. “그가 어른이 되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아이를 잘 기르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여 모글리는 시오니 늑대 무리의 일원이 되었다. 아빠 늑대, 발루, 그리고 바기라는 모글리에게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제 2 장] 원숭이족

p. 26-27 여러 해가 지나고 모글리는 힘센 소년으로 성장했다. 발루는 그에게 다른 여러 정글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모글리는 가르침들을 공부하는 대신에 노는 것이 좋았다.

어느 날, 모글리가 집중하지 않자, 발루가 그의 머리를 때렸다. 이 때문에 모글리는 기분이 나빴다. 바기라가 발루에게 말했다. “그 애는 어린 소년에 불과해. 살살 다루.” “그 애는 정글의 말을 모두 알고 있어 야지만 안전할 거야.” 발루가 말했다.

p. 28 발루는 수업을 계속했다. “사냥을 하는 종족들에게 정글의 말을 해봐.” “와 나, 우린 같은 핏줄이다.” 모글리가 말했다. “아주 잘했어. 이제 하늘에 있는 새들에게 그것을 말해봐.” 모글리는 하늘에 있는 새들을 향해 그 말을 했다. 발루는 그를 칭찬했다. “네가 이 가르침들을 기억한다면, 결코 아무것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네가 어른이 되면 날 이해할 거야.” 그러자 모글리는 일어선다. “내 종족은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난 그들과 함께 높은 나무에서 살 거라구요.”

p. 30-31 이 말에 발루는 매우 놀랐다. “모글리, 뭐라고 했니? 너, 반다로그족을 만났니?” 발루와 바기라는 둘 다 화난 것 같았다. “내가 나무에 있을 때, 원숭이족이 내게 왔어요. 그들은 내게 음식을 주고 나와 함께 놀았죠. 난 그들과 또 놀고 싶어요. 그들은 내가 언젠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거라고 말했어.” 라고 모글리가 말했다. “안 돼!” 발루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넌 정글족의 법을 배웠어. 원숭이족은 법이 없다. 그들은 나빠. 넌 그들과 가까이 있어서는 안 돼.” 모글리는 기분이 매우 나빴다.

p. 32-33 수업이 끝난 후, 그들 셋은 잠이 들었다. 갑자기 모글리는 잠에서 깨어났고, 자기가 나무 높은 곳에 있음을 알았다. 조그만 손들이 그를 채 가고 있었다. 발루와 바기라는 그들을 뒤따랐다. 그들은 원숭이들에게 서라고 소리쳤다. 원숭이들은 그들을 비웃을 뿐 모글리를 데려가 버렸다.

모글리는 매우 두려웠다. 그는 하늘을 살피다 술개를 보았다. “와 나, 우린 같은 핏줄이야.” 모글리가 새의 언어로 술개에게 외쳤다. “넌 누구냐?” 술개가 물었다. “난 인간의 새끼인 모글리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발루와 바기라에게 말해 줘.”

p. 34 “우리는 그들을 따라 잡을 수 없어. 그들은 너무 빨라.” 발루가 말했다. “비단뱀 카아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는 모글리를 쉽게 찾을 거야.” 바기라가 말했다. 발루와 바기라는 카아가 햇빛을 쬐며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갈색과 노란색을 띤 커다란 뱀이었다. 그들은 그를 깨우기 위해 소리를 냈

다. “안녕.” 카이가 그들에게 인사했다. “우린 먹이를 찾고 있어.”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린 반다로그를 찾고 있지.” “정말? 함께 가자. 난 배고파.” 키이기 말했다.

p. 36-37 술개가 그들 쪽으로 날아가서 말했다. “어떤 인간의 새끼가 나에게 정금의 말로 말했어. 반다로그족이 그 애를 ‘잃어버린 도시’로 데려갔어.” “우린 당장 가야 해.” 바기라가 말했다. “흰 나보다 빨라.” 발루가 말했다. “먼저 가. 내가 너희를 뒤쫓아 갈게.”

모글리는 반다로그족과 함께 있는 게 즐겁지 않았다. ‘여긴 아주 나빠.’ 모글리는 생각했다. 모글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끼었다. ‘어두워지면 도망가야지.’ 그는 생각했다.

[제 3 장] 잃어버린 도시에서 탈출하다

p. 42-43 바기라와 카이는 이제 잃어버린 도시에 있었다. “우린 아주 조심해야 해. 원숭이들은 수백 마리지만, 우리는 고작 둘뿐이야.” “난 서쪽 벽으로 가서 위에서부터 그들을 공격할게.” 카이가 말했다. “행운을 빌어.” 바기라가 말했다.

그런 다음 흑표범은 원숭이들과 싸우러 갔다. 그는 그들을 매우 세게 쳤지만, 그들은 너무 많았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다른 원숭이들은 모글리를 끌고 가버렸다.

p. 44-45 바기라를 돕기 위해 모글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그에게 좋은 수가 떠올랐다. “바기라, 근처에 있는 저수지로 들어가세요. 원숭이들은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물을 싫어해요.”

바기라는 그 말을 듣고 저수지로 달려갔다. 그는 모글리가 무사해서 기뻐했다. 그때, 발루가 잃어버린 도시로 들어갔다. 그는 원숭이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카이는 서쪽 벽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발루를 에워싸고 있는 원숭이의 무리로 들어갔다. “카아아! 카아아!” 원숭이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p. 46-47 “스스스스스.” 카이가 소리냈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카이의 한 마디는 반다로그족을 꼼짝 못하게 하는 데 충분했다.

그제서야 바기라는 저수지에서 기어나왔다. “원숭이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카이가 말했다. “고마워, 카아.” 발루와 바기라가 말했다. “천만에. 가서 인간의 새끼를 찾아.” 카이가 말했다. “모글리! 어디 있지?” “난 갇혀 있어요. 이 방에 있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모글리가 외쳤다. 키이기 벽을 몇 번 쳤다. 마침내 그는 구멍을 뚫었고, 모글리는 그 구멍으로 나왔다.

p. 48-49 모글리는 발루와 바기라에게 달려가 그들을 껴안았다. “나 때문에 당신들이 많이 다쳤군요.” “우린 괜찮아. 카이에게 고마워해야 해.” 발루가 말했다. 모글리는 돌아서서 대단한 그 뺨을 부었다. “와 나, 우린 같은 핏줄이야.” 모글리가 그에게 뺨의 언어로 말했다. “넌 우리말을 아주 잘하는구나. 이제 가거라. 넌 지금부터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을 봐선 안 돼.” 그런 다음 카이는 몸을 돌려 원숭이들 쪽으로 갔다. 그들은 완전히 꼼짝 못하고 있었다. 카이는 그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p. 50-51 원숭이들은 모두 카아가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느 원숭이들도 움직일 수 없었다. 발루와 비기라도 그랬다.

그들은 모두 비단뱀의 주문에 걸려 있었다. 모글리만이 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카아가 명령했다. 원숭이들은 모두 가까이 다가갔다. 발루와 비기라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그때, 모글리는 발루와 비기라를 흔들었다. 그들에게 걸려 있던 주문이 풀렸다. 그들이 깨어났다. “우린 이곳을 떠나야 해요.” 모글리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래, 가자. 그런데 모글리, 네 양손을 우리한테서 떼지 마. 만약 네가 손을 떼면, 우린 카아에게로 돌아갈지 몰라. 그럼 그는 우릴 잡아먹을 거야.”

p. 52 그들 셋은 정글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카아는 오늘밤 포식할 거야. 그렇지만 모글리! 우린 너 때문에 고생했어. 넌 반다로그족과 어울렸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를 물어뜯고 때렸지.” 비기라가 말했다. 모글리는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었다. “나도 알아요. 미안해요.” 하고 그가 말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글의 법에 따르면 넌 벌을 받아야 해.” 비기라가 말했다. “그래요, 전 혼나야 해요.” 모글리가 말했다. 비기라는 모글리를 때렸다. 그러나 모글리는 울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십으로 돌아왔다.

[제 4 장] 마지막 회의

p. 56-57 모글리는 커가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다. 동물들이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시어 칸만 빼고 모든 동물들과 친구였다. 시어 칸은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인 아켈라가 이제 아주 늙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젊은 늑대들에게 모글리가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p. 58-59 비기라가 이 얘기를 듣고 모글리에게 말했다. “넌 항상 조심해야 해. 아켈라가 영원히 우두머리로 있던 않을 거야. 시어 칸은 너를 죽이고 싶어 해. 네가 먼저 그를 죽여야 한다.” “하지만 우린 모두 가족이잖아요.” 모글리가 말했다. “넌 인간이야. 넌 영리해. 넌 달라.” 비기라가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난 그걸 전혀 몰랐어요.”

“새로운 우두머리가 나오면, 넌 마을로 가서 붉은 꽃을 구해야 해. 그것이 널 지켜 줄 거야.” 붉은 꽃은 불이었고, 동물들은 모두 그것을 두려워했다.

p. 60-61 모글리는 멀리서 몇몇 늑대들이 사슴을 사냥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켈라! 당신은 당신의 힘을 증명해야 하오. 사슴을 죽이시오!” 다른 늑대가 명령했다. 하지만 아켈라는 사슴을 죽이지 못했다. 모글리는 매우 걱정스러웠다. 그는 마을로 가서 불을 구했다. 그는 그것을 정글로 가져왔다. 그날 밤, 만남의 바위에서 회의가 열렸다. 모글리는 그곳에 갔다. 아켈라는 늘 바위 높은 곳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그 바위 옆에 있었다. 이제 더 젊고 힘센 늑대가 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p. 62-63 모글리는 불이 든 단지를 들고 무리 속에 앉았다. 갑자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시어 칸이었다. “바위 위에 자네들을 이끌어 줄 늑대가 없군. 시어 칸이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줄까?”

다른 늑대들이 말했다. “아켈라가 먼저 말해야 하오.” 아켈라가 말하기 시작했다. “난 오랫동안 너희들의 우두머리였다. 하지만 이제 난 시슴을 죽이는 것도 실패했다. 정글의 법에 따르면, 너희들에겐 나를 죽일 권리가 있다.” 시어 칸은 늑대를 보고 비웃었다. “넌 늑어빠진 늑대일 뿐이야. 넌 곧 죽을 거야. 죽어야 하는 건 바로 인간의 새끼지. 그 애는 정글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다. 그 애를 내게 줘.” 몇몇 젊은 늑대가 동의했다. “맞아, 그 애는 떠나야 해.”

p. 64 “그 애는 우리의 형제다.” 아켈라가 외쳤다. “그 애는 우리와 모든 걸 함께 했다.” 다른 늑대들 대부분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 애는 인간이오. 정글에 있어서는 안 되오.” 이제 모글리는 매우 화가 났다. “난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난 다시는 여러분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난 내 운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내겐 꽃이 있습니다. 내겐 나만의 힘이 있습니다.” 모글리는 불이 든 단지를 떨어뜨렸고, 약간의 불이 땅에 쏟아졌다. 다른 동물들은 불을 보고 매우 무서워했다.

p. 66-67 “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나의 종족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기 전에, 시어 칸, 이 소를 죽이는 놈.” 모글리는 불타고 있는 막대기로 시어 칸의 머리를 쳤다. “이것이 인간들이 소를 죽이는 놈들에게 하는 일이다. 난 네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 손에 넣기 전에는 이 바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모글리는 그의 늑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네가 사람이 되면 우리를 찾아 줘.” 그의 어머니, 이빠, 그리고 형제 늑대들이 말했다. “돌아올게요. 그리고 시어 칸의 가죽을 가지고 올게요.”

그런 다음 모글리는 자기와 같은 이들을 찾아 떠났다.

[제 5 장] 마을 생활

p. 72-73 모글리는 정글을 떠나 어느 마을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젓소들과 들소들을 지키고 있는 소년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모글리를 보고 겁을 냈다. 그들은 마을로 뛰어 갔다. 소년들은 마을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돌아왔다. 사람들은 모글리를 보았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많이 있었다. “이것들은 늑대에게 물린 자국이에요.” 한 사람이 말했다. “메수아! 기억해 봐요, 메수아! 당신 아이가 호랑이에게 물려 갔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 “맞아요. 저 애는 정말로 내 아들과 닮았어요. 저 애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겠어요.” 메수아가 말했다.

p. 74-75 모글리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함께 살았다. 그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그는 또한 인간의 언어를 배우려고 최선을 다했다. ‘난 인간이야.’ 그는 생각했다. ‘인간처럼 살아야 해.’

모글리는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웠다. 그는 사람들처럼 말하는 법과 먹는 법을 배웠다. 그는 옷을 입었고, 축제 때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 그는 젓소와 들소 돌보는 일을 했다.

p. 76-77 어느 날 밤, 그는 창문을 통해 기어나갔다. 그는 별빛 아래서 자고 싶었다. 그가 들판에 누자, 곧 그의 얼굴에 서늘하고 축축한 코가 닿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늑대 새끼 중 가장 매희인 그레이

형이었다. “그레이 형! 만나서 정말 반가워.”

“에게 전해줄 소식이 있어. 네기 볼로 시어 칸의 털을 태웠잖아. 그는 매우 화기 나서 멀리 기버렸어. 그런데 그가 다짐을 하더군. 자기가 돌아오면, 널 죽일 거라고.” 그레이 형이 말했다. “나도 다짐했어.” 모글리가 말했다. “내게 늘 소식을 전해 줘, 그레이 형. 우린 또 만나야 할 거야.” 모글리가 말했다. “내가 날마다 강가의 커다란 나무로 가서 형을 기다릴게.”

p. 78-79 모글리는 매일 그 나무로 갔다. 한동안 그레이 형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그곳에서 모글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 칸이 오늘 저녁 마을 입구에서 널 공격할 계획이야. 그는 와인군가 계곡에서 쉬고 있어. 오늘 아침에 그는 먹고 마셨어.” 그레이 형이 모글리에게 말했다. “정말 어리석은 호랑이로군.” 모글리가 웃었다. “그의 배는 지금 꽉 차서 무거워. 그는 빠르게 달릴 수 없을 거야. 내가 계곡에 있는 시어 칸을 기습 공격할 수 있겠어.”

p. 80-81 “내게 좋은 수가 있어.” 모글리가 말했다. “난 이 쫓소 때를 계곡 끝으로 몰고 갈 거야. 그들이 시어 칸을 막을 거야. 그런 다음, 들소들을 몰아서 계곡 아래로 뛰게 할 거야. 그들은 시어 칸을 뒤쫓을 것이고, 쫓소들은 그가 도망가는 것을 막을 거야. 난 쫓소와 들소 떼 사이에 있는 그를 잡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을 나 혼자 할 수는 없어.” “내가 돕고 싶어.” 그레이 형이 말했다. “도울 수 있는 이가 또 있어. 바로 아켈리아!” 그레이 형이 말했다.

바로 그때, 아켈리아가 나타났다. 모글리는 매우 기뻐했다.

p. 82-83 “우린 조용히 그 일을 해야 해. 시어 칸을 깨우면 안 돼.” 모글리가 말했다. 그래서 아켈리아와 모글리는 들소들을 조용히 몰아 계곡 꼭대기로 갔다. 이제, 모글리는 가장 큰 들소인 라마를 타고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시어 칸! 우리가 싸울 때다.” 그런 다음 아켈리아는 들소들을 계곡 아래로 달리게 했다.

시어 칸은 들소들이 달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도망치기 위해 달려야 했지만, 빨리 될 수 없었다. 뱃속에 든 음식 때문에 그러기가 어려웠다. 그는 계곡 아래로 달렸다. 그러자 쫓소들이 보였다.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순식간에 그들은 시어 칸을 덮쳤다. 거기서 모글리는 라마에서 내렸다. 그는 뒤를 돌아 죽어서 땅바닥에 누워 있는 시어 칸을 보았다. “우리가 해냈다!” 모글리가 외쳤다. “우리가 시어 칸을 죽였다!”

p. 84-85 모글리는 칼로 호랑이의 가족을 벗겨냈다. “정글에 있는 우리 집으로 가요.” 그가 그레이 형과 아켈리아에게 말했다. 그들은 엄마 늑대의 동굴로 갔다. “어머니.” 모글리가 큰 소리로 불렀다.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시어 칸을 죽였어요.” 그의 엄마와 늑대 가족들은 그를 맞이하러 왔다. “네가 집에 와서 우린 정말 기쁘다.” 그들이 말했다. 그때, 바키라가 나타났다. “꼬마 동생! 돌아왔구나.” 그가 말했다. 모글리는 그들에게 시어 칸의 가족을 보여 주었다.

“난 늑대 무리의 일원이 아니에요.” 모글리가 말했다. “그리고 난 마을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난 정글에서 혼자 사냥할 거예요.”

그러자 모글리의 늑대 가족이 말했다. “우린 함께 사냥할 거야. 우린 한 가족이니까.” 그리하여 모글리와 그의 늑대 가족은 만남의 바위를 떠났다. 그들은 정글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